

귀성, 26-7일 · 귀경, 29일 혼잡 예상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는 26일부터 30까지 5일 간을 설 연휴 특별교통소통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특별교통소통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설 연휴 기간 하루 평균 고속도로 이용차량은 전국적으로 약 414만대로 전년 대비 5.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권은 하루 평균 약 28만대로 전년 대비 6.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설 당일 38만대로 최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귀성은 26일 12시부터 27일 18시, 귀경은 29일 09시부터 30일 01시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며, 영업소 기준 서울~전주 간 평균 소요 시간은 짧은 귀성기간으로 인해 귀성은 4시간 50분, 귀경은 4시간 5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는 다양한 교통관리기법을 현장에 적용해 정체를 해소하고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할 계

도공 전북본부, 설 연휴 특별교통소통 대책 시행 익산분기점 · 논산나들목 진출램프 감속차로 연장 동서천분기점~군산나들목 임시갓길차로 운영 등

획이다.

먼저, 익산장수선 익산분기점과 호남지선 논산나들목 진출램프 감속차로를 연장해 진출차량을 신속히 처리하고 분선 정체를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서해안선 동서천분기점~군산나들목 구간에 승용차 임시갓길차로를 운영해 분선 통행속도 증가를 도모하고 분선 진입교통량 조절을 위하여 국도우회안간판 및 차선규제봉 추가설치 등 교통수요조절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설 연휴 휴게소 직원화장실 개방 및 임시화장실을 추가로 운영(127칸)하고, 전 자율선택에 화장실을 설치(31

개소 96칸)하여 화장실 부족으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특히, 최근 관내 26개 휴게소 화장실 시설개선공사 준공과 함께 전개되는 '화장실 문화혁신 캠페인'을 통해 이용객들의 쾌적한 휴게소 이용을 도모할 예정이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평시 대비 서비스 인력을 대폭 증원하고 떡국나누기 행사, 민속놀이체험 등 각종 이벤트 행사를 진행하며 안전한 여정을 위해 6개 휴게소에서 차량 특별 무상점검 서비스를 시행한다.

더불어 연휴가 시작되는 26일에는 전 국민 교통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익산국도관리청 등 6개 교통안전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전좌석 안전띠 착용' 캠페인을 14시부터 15시까지 여산(순천)휴게소 등 전북관내 7개 휴게소에서 동시 실시할 예정이다.

최적 출발시간, 이동경로 및 고속도로 소통상황 등 실시간 교통정보는 스마트폰 '고속도로 교통정보' 앱, 휴대전화 문자, 인터넷 및 콜센터(1588-2504)를 통해 24시간 확인할 수 있으며 TV와 라디오를 통해서도 수시 제공된다.

스마트폰 교통정보 제공 고속도로 교통정보 앱을 활용해 고속도로 노선별 소통현황 및 CCTV 영상, 우회국도 소통현황정보 및 CCTV 영상, 휴게소 등의 정보를 편리하게 얻을 수 있다.

관계자는 운전자들에게 장거리 운전 대비해 출발 전 날씨 및 교통정보 확인, 차량점검 및 쓰레기봉투 준비와 더불어 전 좌석 안전띠 착용 등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인재용 기자



전북도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사)전북경제살리기도민회의는 7개 시·군에서 전통시장 살리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설 장보기는 전통시장에서...”

전북경진원, 전통시장 살리기 캠페인 전개

전북도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사)전북경제살리기도민회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살리기 캠페인을 도내 7개 시·군에서 개최한다.

2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고창군, 남원시, 부안군, 순창군, 완주군, 임실군, 전주시 각 지역 전통시장에서 총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전통시장과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장보기 행사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구입한 생활필수품 등은 호상보육원 외 4곳의 도내 사회복지기관에 위문품으로 전달하는 행

사도 함께 이뤄진다.

경진원 홍용웅 원장은 “계속되는 불경기과 AI, 청탁금지법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부담감이 가장 되고 있는바 도민들께서 전통시장 이용을 통한 현명한 소비를 해주시길 바라며, 내고장상품 이용에도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전북개발공사도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맞아 24일 전주 남부시장에서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시장 상인들의 사기 진작과 서민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마련됐다. /인재용 기자

훈련비 지원에 임금까지 받는 ‘일석이조’ 혜택

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 사업주훈련 참가 기업 · 단체 컨설팅 신청서 접수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는 사업주훈련에 참여하고자 하는 도내 기업 및 단체에 대해 컨설팅신청서를 접수한다.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은 (이하 사업주훈련)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의 소속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교육을 실시할 때 이때 소요되는 훈련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정해진 기준을 충족할 경우 훈련비 이외에 식비, 숙박비, 훈련수당, 임금의 일부까지도 지원 받을 수 있다.

훈련 방법은 사업주가 훈련 계획부

터 최종 환급까지 모든 절차를 직접 수행하는 자체훈련과 고용노동부에서 승인받은 훈련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위탁훈련이 있다.

실시하는 훈련이 일평균 5시간 이상 일 경우 하루 식비 3,300과 숙박비 1만4,000원이 지원되며,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한달 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생에게 20만원의 훈련 수당도 지원된다.

또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상시근로자 150인 미만 기업의 재직 근로자가

유급휴가과정으로 인정받은 훈련에 참여할 경우 임금의 일부까지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특히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유급휴가훈련’ 최소 훈련 시간이 당초 30시간에서 20시간으로 변경돼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할 유급휴가 일수 또한 7일에서 5일로 축소됐으며 향후 유급 휴가훈련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주훈련을 통해서 지원 받을 수 있는 교육 내용은 해당 근로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야하며, 품

질 향상 및 생산성 향상 교육 등 공통 직무에 해당되는 교육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최근 기업에서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비롯한 법정 의무교육을 사업주 자체 훈련으로 진행하면서 의무교육 실시 후 훈련비까지 지원 받아 사업주훈련을 통해 일석이조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컨설팅 신청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운 받을 수 있으며 컨설팅 신청 방법에 따라 담당자가 직접 기업에 방문하는 무료 찾아가는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인재용 기자

중기중앙회 전북본부,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설명회

중소기업중앙회 전북본부는 24일 전북경제통상진흥원에서 70여명의 중소기업 CEO와 협동조합 임직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전북지역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스마트공장추진단,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전문위원과 중소기업간 1:1 개별상담을 통해 스마트공장 신청절차 등 세부적인 사업설명이 진행됐다.

또한 이날 설명회에서는 작년 스마트공장 지원을 받은 에스넷(주)는 사례발표를 통해 스마트공장 도입후 생

산성이 크게 증가했다며 중소기업의 근본 체질개선을 위해서 스마트공장을 적극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존 전북본부장은 “스마트공장 추진으로 원가절감, 불량률감소, 납기단축 등 생산성이 대폭 향상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스마트공장 구축 여부를 놓고 고민하는 기업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사업의향서를 제출하고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전북중기청,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사업 실시

전북중소기업청은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뿌리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사업’을 2월 1일부터 21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만 신청할 수 있는 전용사업으로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http://www.root-tech.org>)에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사업은 기술의 파급성 및 공공성이 높은 핵심부

리기술의 적용범위 확대 및 수요지향적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이를 위해 생산리드타임 단축, 불량률 저감 등 공정혁신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년동안 최대 1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전북중소기업청 정영탁 청장은 “자동차 등 지역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뿌리산업 없이는 불가능하다”면서 “핵심뿌리기술을 보유한 전문기업이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인재용 기자

전기공사협 전북도회, 정기총회 개최

김은식 신임 도회장 선출 부회장에 양관식 대운 대표



건설단체장 등 내.외빈 5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박주식 전임 도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3년간 대과업이 도회를 이끌어 올 수 있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북도회는 24일 제50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도회장에 김은식 (주)세움이앤씨 대표이사, 신임 부회장에 양관식 (주)대운 대표이사를 선출했다.

호텔리원에서 회원 250여명이 참석한 이날 총회에서는 신임 지도부 선출과 업계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회원 및 전력산업계 관계자들에 대한 포상 및 지역 인재육성을 위해 재단법인 전북전기공사협회학회에서 전기관련 학과 대학생, 고등학생 총 19명에게 2,300만원의 장학증서 수여도 함께 진행했다.

올해 전북도회 정기총회는 김광수 국회의원의, 진 홍 도 정부부지사, 한국전기공사협회 이유중 부회장, 한국전기인공사 김이원 기술이사, 전라북도 교육청 구원중 시설과장, 전북지역

었던 것은 회원여러분의 희생과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이제 회원의 한사람으로 돌아가 업계와 협회발전을 위해 회원과 함께 동고동락 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식 신임 도회장(사진)은 “단독후보로 출마해 회원님들의 진폭적인 지지 속에서 출발한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모든 사람이 한마음 한 뜻으로 공동의 목표를 위해 다 같이 힘쓰고 노력한다는 동심동덕(同心同德)의 의미를 되새겨, 부회장과 함께 행동하는 일꾼이 되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인재용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